

2022 추석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갈 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 도 신 경 다 갈 이

찬 송 ...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갈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 표 기 도 가 족 중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늘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13~16 다 갈 이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 그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설 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인 도 자

매년 추석이 되면 수천만 명의 귀성객이 고향을 향합니다. 전국의 도로가 귀성 인파로 인해 북새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고향은 좋은 곳이기때 고생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때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들은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좋은 고향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16절을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땅 위의 고향 즉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하늘 위의 고향 즉 영혼의 고향인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이 더 좋은 고향입니다. 실향민도 안타깝지만 ‘영적인 실향민’이 아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결국 사라져 버리고 천국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고향인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13절을 보니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2022

추 석 가 정 예 배

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천국이 우리의 행선지요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천국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함께 하심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건강과 재능 등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고향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영혼의 고향인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1.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됨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내 영혼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게 하소서.
2.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